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	2022년 2월 1일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자연재난과	담당자	• 자연재난팀장 김형석 ☎440-3351 • 담당자 윤태웅 ☎440-3352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대설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돌입 · 제설작업 총력

- 제설작업에 장비 186대 투입, 주요도로 · 언덕길 · 교량 등 제설 집중 -
- 설 연휴에도 인천시 공무원 1천2백여 명 비상근무, 귀성 · 귀경길 교통안전에 만전 -

인천광역시시는 1월 31일 20시를 기해 인천 전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, 주요 도로 및 언덕길에 밤샘 제설작업으로 설 명절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 전역에 약 5.3cm의 눈이 내렸고, 서구 8.7cm, 강화도는 최고 9.1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.

이에 인천시와 종합건설본부 및 군 · 구에서는 인력 388명, 장비 186대를 동원해 제설재 1,706톤을 투입하는 등 눈이 내리기 전부터 제설취약 지역에 선제적으로 제설작업을 시작했다.

또한 시는 대로와 언덕길, 결빙구간, 교량 등 취약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만일에 있을지 모를 재난사고에도 적극 대비할

계획이다.

한편,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명절에도 밤샘 비상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“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시민들이 귀성 · 귀경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하고, “급격한 온도저하로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, 건물 주변의 보도나 골목길에 대한 ‘내 집 앞, 내 점포(상가) 눈치우기 운동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

